

제73주년 개교기념식 기념사

**“국민의 미래를 열어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대학!
행복한 국민*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올해는 해공 신익희 선생께서 국민을 위한 대학을 표방하며 우리 대학을 설립한 지 7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마침 성곡 김성곤 선생께서 국민학원을 인수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창학 이후 10여 년 동안 재정난에 시달리던 우리 학교는 해공 선생 서거 후 작은 바람에도 흔들렸습니다. 성곡 선생은 “해공 선생이 남겨놓고 간 것은 국민대 하나뿐이다.”라고 하시면서 국민대를 인수하여, 비로소 학교 중흥의 발판을 마련하며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일찍이 성곡 선생께서 우리 학교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을 “대학에 대한 나의 끊임없는 동경과 집념 때문이다.”라고 하셨으며, “국민대학은 내 생애에 가장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한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학교에 끝없는 애정을 가지셨던 분입니다. 그러기에 성곡 선생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학발전을 위해 모든 정열과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정치가사업가로 바쁜 가운데서도 촌음을 아껴 학교 일을 자상하게 손수 챙기셨습니다.

낡았던 창성동 옛 교사 2층 목조건물을 5층 콘크리트 교사로 신축하였고, 백년대계를 내다보며 지금 이곳 북한산 기슭에 학교의 새로운 터전을 정하였습니다. 이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산을 깎고 정지하여 현재 본부관인 1호관을 세웠으며, 그 뒤 20여 년의 창성동 시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정릉동 시대를 열어 나갔습니다. 이어 우리 학교의 상징처럼 우뚝 선 북악관도 완공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성곡 선생은 당신이 소유한 주식과 거액의 현금을 아낌없이 쏟아부으셨고, 국민학원 사업부에서 쌍용양회 판매점을 운영토록 했으며, 쌍용그룹의 지속적인 기부금 지원을 통해 학교 운영에 큰 보탬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국민대학교가 민족혼이 담긴 전통의 명문 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된 것은 해공 선생님과 성곡 선생님의 숭고한 뜻을 잘 받들어, 역대 이사장, 학장, 총장 그리고 많은 교직원과 학생, 동문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 학교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해공 선생님의 건학이념과 성곡 선생님의 육영이념을 바탕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우수한 인재를 많이 배출하여, 국민의 미래를 열고,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국민의 대학으로 힘찬 행진을 계속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국민대학교 총장 임홍재